

취/임/사

## 양계인의 위상을 높이고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노력



최준구 본회회장

**제** 17대 협회장으로 선출해주신 대의원 및 양계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발생되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FTA, DDA 등 국제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양계업계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양계업계에 당면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협회장직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양계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양계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 업종별로 풀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계의 경우 육계 농가의 80%이상이 계열화에 참여하면서 사육수수료 등 계열업체들로부터 받는 불이익으로 많은 계약사육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계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계약서를 공표한 바 있으며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육계가격이 kg당 1,300~1,400원을 상회할 경우 시세 보너스를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을 시킨 바 있듯이 육계표준계약서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적으로 추궁하여 동등한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설립된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는 가열닭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설립에 동

의한 바 있으며, 우리닭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을 통해 외국산 닭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하에 수입산 닭고기 사용을 억제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국내 육계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계분야에 있어서는 본회에서 지난해부터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종계 D/B구축 사업을 확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규칙적인 육계산물의 가격변동을 막고 체계적인 종계관리로 항상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양계산물 보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과 관련하여 당면현안으로 다가서고 있는 백세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질병방역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채란업계는 최근 이례적인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언제 생계란이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흔들어놓을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채란업계 역시 생계란 수입은 물론 오랜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는 후장기를 없애는데 함께 노력해 가자는 조건하에 계란유통협회 설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산란계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대군업자들이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자조금 사업과 연계하여 채란업 발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통사안으로는 계란과 닭고기 유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란·닭고기 공판장 내지 중앙도매 시장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는 양계산업발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축산국 및 농정심의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바 있으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개인담을 하는 육계인의 판로가 원활해질 수 있으며, 계란유통도 상인들에게만 의지했던 기존의 유통 체계가 공정거래 형태로 바뀌어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안성에 있는 닭경제능력검정소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검정소의 주변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검정소 시설 또한 노후되어 검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적으로 오염의 우려가 없는 땅을 구입하여 실용계는 물론 종계까지도 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조금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기내에 자조금사업의 정착을 확립시키겠습니다. 현재 자조금 거출기관에 대해 의견이 집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상당수의 양계인들이 사료부분에서의 거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요로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시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안 이외에 항생제 잔류문제, 질병문제 등 풀어가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양계인들의 집결된 힘을 결집하여 협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시기에 저를 협회장으로 뽑아준 대의원 및 양계인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양계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회, 질적·양적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계**